여시아문 www.yosiamun.com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수계법회에서 5계를 봉독하는 우디뜨 라즈씨(앞줄 맥에 푸른 카타를 두른 이)가족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개종식을 마친 후 정부의 집회불허에 항의, 가두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대치중인 불자들.

# 힌두교도 1만여명 불자로 거듭나다

## 4일 인도 뉴델리 '개종행사' 참관기




이지은 통신원

인도 델리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


부처님의 나라, 인도에서 불교중흥의 바람이 불고있다.

4일 인도 뉴델리시 암베드까르회관에서 열린 '대 개종식'에서는 불자 10만인도 최대 일간지 'Times of India' 등 현지 언론들은 5만으로 집계)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불가촉천민 1만여명이 불자로 거듭 태어났다.

이번 행사는 지난 1956년 열린 현대 인도불교의 아버지 암베드까르 박사의 개종식에 이은 45년만의 대규모 개종 사건으로서 인도 불교중흥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원래 암베드까르 박사의 개종 기념일과 같은 지난 10월 14일, 1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델리의 람 릴라(Ram Lila) 광장에서 열기로 했던 이날 개종식은 인도 정부측에서 끝까지 집회 허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암베드까르 회관 경내의 공터로 급히 장소를 옮겨 거행됐다.

이번 법회를 주최한 '로드 붓다 클럽'(Lord Buddha Club)의 전국대표인 우디뜨 라즈(Udit Raj) 힌두교도 성자의 이름에서 딴 Ram을 Udit

### 정부 집회 불허했지만
### 장소옮겨 법회강행
### 10만불자 동참 '5계 봉송'

### 로드붓다클럽 지도자들
### 북인도 8개주 돌며
### 4월부터 전법여행

로 바꿨다는 개회선언을 통해 "1956년 암베드까르 박사와 50만명설에는 100만명의 개종에 이어 현대 인도불교 제2의 중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번 개종식의 의미를 천명했다.

개회 선언에 이어 우디뜨 라즈 씨의 삭발식이 거행됐다. 비록 출가는 하지 않았지만 한 스님으로부터 머리를 깎은 그는 불법에 귀의하겠다고 발원하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부처님 전에 나아가길 바란다"며 자리에 모인 대중들을 이끌었다. 이어 그는 무대 위에 간소하게 마련된 불단에 촛불을 밝히고 향과 꽃을 올렸다. 부처님 앞에 꿇어앉은 우디뜨 라즈 씨 일가족과 그의 측근들이 붓다프리야 라훌(Buddhapriya Rahul) 스님을 따라 5계를 봉송했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대중들도 5계를 봉송하며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다짐했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빨리어 예경문도 잇달아 봉송했다.

우디뜨 라즈 씨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암베드까르 박사가 45년 전 개종할 당시 정한 '불자의 22가지 서약'을 인도어로 낭독했다. 이는 인도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춘 불자의 맹세로서 힌두교의 신을 믿거나 제사 지내지 않고, 힌두교도들이 부처님에 대해 날조한 거짓 교설을 믿지 않으며, 만인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 것이다.

수계법사인 붓다프리야 라훌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교는 진정으로 평등을 추구하는 종교이며 부처님께서도 신분제를 타파하고자 하셨다"며, 수계 불자들에게 5계를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개종법회가 기획된 것은 지난 4월, 100만명의 사람들을 불법에 귀의시킨다는 목표로 로드 붓다 클럽 지도자들은 붓다, 암베드까르 등의 초상화로 장엄한 버스의 지붕을 개조하고 음향시설을 갖춘 이동 법석을 활용, '법의 수레'(Dhamma Vahana)라는 이름으로 전법여행을 시작했다. 법의 수레는 웃따르 쁘라데쉬, 비하르 등을 비롯, 북인도 지역 8개 주를 돌며 불법을 전파했다. 약 7개월에 걸친 전법여행 결과 지난 9월에는 25명이 수계식을 갖고 비구로 출가했다.

그러나 힌두교 원리주의 단체 회원들과 경찰을 앞세운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로 전법여행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사정으로 행사 시작 당시 모인 인원은 예상 참가 인원을 훨씬 밑도는 6-7만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속속 행사장으로 입장했고, 원래부터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던 암베드까르 회관에는 더 이상 자리가 없어 많은 사람들은 회관 담장 밖 도로에 앉을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늘어난 인파는 10만에 육박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참석하지 못한 예비불자들의 수가 엄청났기 때문에, 각 지역 로드 붓다 클럽 지부를 통하여 지역별 개종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회관에서의 행사가 모두 끝난 후, '불법 안에서 우리는 하나', '가자, 람 릴라 광장으로'라는 구호에 맞춰 스님들과 수천명의 대중들이 '법의 수레'를 앞세우고 암베드까르 회관을 나서 거리로 나왔다.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었던 도로에서는 경찰들이 최루탄을 장착한 버스를 대기시킨 채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들을 저지했다. 경찰의 저지로 가두행진이 무산되자 이들은 노상에서 간단한 예불의식을 봉행한 후 붓다프리야 라훌 스님의 법어와 우디뜨 라즈씨의 연설을 듣고 약 2시간 만에 스스로 해산했다.

이날 행사에서 대중들은 정부에 대한 규탄성 주장과 비난 등 정치집회의 성격을 띠자 냉담한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적극적 정치참여를 통한 불교인의 평등권 확보와 소수 종교로서의 권리 찾기, 사회 정의의 실현 등은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에 앞서 소수 정치인들의 사욕 때문에 희생당하며 아파하는 민초들의 불심을 헤아릴 수 있는 인도 불교계 지도자들의 지혜가 요구된다.



◇'법의 수레' 위에서 가두행진을 지휘하는 붓다프리야 라훌 스님과 우디뜨 라즈 씨.

## "우리의 옛종교 되찾는 의식"

### 수계법사로 참석 라훌스님



◆이번 개종식의 의미는.

"'개종'이 아니라 '중흥'이라고 해야 한다. 우리가 다시 불법에 귀의하는 것은 개종이 아니라, 우리의 옛 종교를 되찾는 것이다."

◆앞선 7개월간의 전법여행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VHP(Vishwa Hindu Parishad: 세계 힌두교도 연맹)는 각 마을마다 청년회원들을 동원해 법의 수레가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 마을의 하층민들을 위협해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문중에 현 정부와 민중당을 비난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마을에서 VHP는 경찰과 한 패가 되어 우리를 핍박하였고, 정부도 이번 행사를 불법화시킴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억압했다. 민중당은 힌두 원리주의자들의 불교도 분열 획책에 속아 우리를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했던 법문의 핵심은 역시 '계행의 준수'에 있었다."

## "개종운동 통해 정신 재무장"

### 로드붓다클럽 우디뜨 라즈씨



◆이번 개종식을 계획한 동기는.

"불교가 북인도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위치에 있었기에, 개종운동을 통해 정신적인 재무장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라즈씨가 이번 개종식에서 얻은 대중적 지지를 이용하여 정계에 입문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

"불교도를 포함한 모든 하층 카스트 출신들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힌두 원리주의의 독재로부터 벗어나는 것 뿐이다."

◆하층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향후의 계획은.

"로드 붓다 클럽을 중심으로 전국적이고 지속적인 개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그리고 지정카스트 및 지정부족에 대한 보호정책을 축소, 철폐하려는 힌두 원리주의자들의 음모를 저지하겠다."

### 개종행사 이모저모

#### 자원봉사자 1만5천여명

행사장에는 신체가 불편한 중에도 먼 길을 달려와 불법에 귀의한 사람들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불가촉천민 출신인데다가 다리가 불편하여 이중고를 겪으며 살아온 산데쉬 에크나쓰 딜릭(Sandesh Eknath Dhulik) 씨도 그 중의 한 명이다. 또 마하라슈트라주에서는 1만5천여명의 불자들이 새로운 불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자격으로 참여했다.

#### 기독교도 행사 지지 연설

연설을 한 인사들 중 가장 이색적인 인물은 기독교측 대표로 참석한 조셉 매튜(Joseph Mathew) 씨. '인도 지정카스트 지정부족 기독교도 연맹'의 지도자인 그는 "이 땅에서 억압받아온 여러 형제들이 오늘 평등의 종교인 불교에 귀의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라며 "우리 기독교도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해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 원리주의 진영 조직적 방해

힌두교 원리주의자들의 방해는 조직적이었다. 예비불자들이 기차를 이용한 경우 일부 지역의 기차역에서, 테러 위협을 이유로 9인 이상이 같은 기차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했다. 버스를 이용한 경우도 델리와 델리 외곽 지역 여기저기에서 수백-수천명씩의 행사 참여 행렬이 경찰에 의해 저지되어 발이 묶여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뿐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경찰들이 극렬 힌두 원리주의 단체 회원들과 한 패가 되어 '이번 행사가 정부에 의해 금지되어 결국 취소되었다'며 자기 마을로 되돌아갈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 인도불교현황 집단개종 불자 7백만명 '제2 부흥기'

현대 인도 불교의 주류는 마하라슈트라 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 인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신불교도(Neo-Buddhist)'들이다. 중세와 근대를 거치며 거의 명맥이 끊어지다시피 했던 인도 불교는 암베드까르(B. R. Ambedkar, 1891~1956) 박사에 의해 주도된 집단 개종에 의해 제2의 부흥기를 맞고 있다.

1956년 이래 수백만의 사람들이 힌두교로부터 불교에 귀의했으며 현재는 마하라슈트라 주 인구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불교인구는 최소 700만명, 인도 전체 인구(약 10억)의 0.7%를 차지한다.

이들 인도 불교도들의 대다수는 과거 불가촉천민 출신들로서 힌두교도의 억압에 대항하며, 자신들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높이는 데 힘써왔다. 처음 개종운동이 시작된 계기도 카스트 제도라는 악습을 포기하지 않고 불가촉천민들을 수탈해 온 힌두교에 대항하여, 지고(至高)의 법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그들 자신들의 결속을 강화하자는 데 있었다.

인도 불교는 인도의 여타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세력과 깊숙히 연결되어 있다. 현재 인도 불교는 그 본고장인 마하라슈트라와 주변지역에서는 공화당(Republican Party of India)과 인적, 재정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북인도 지역에서는 최근 그 세력이 급성장 하고 있는 대중당(Bahujan Samaj Party)이 암베드까르 박사의 기치를 이어받아 북인도 여러 주에 개종의 바람을 일으키며 불교도들을 포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인도를 강타하고 있는 힌두 원리주의 정당과 사회 단체들의 회유책과 불교도 분열책으로 인도 내 불교세력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의 인도 불교는 상당부분 재가(在家) 중심의 불교라 할 수 있다. 불교도가 집중해 있는 마하라슈트라주 전체를 통틀어도 출가자의 수는 70~80명을 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다. 다른 나라의 불교에 비하여 의례(儀禮)적인 측면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것, 일반 신도들의 대다수가 '보살'로 추앙하는 암베드까르의 불교 교리 해석에 주로 의존한다는 것 등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